

- * delta feminists #4 긴급회의 발제문
- * 1999. 10. 23. 시타

총여학생회론, 정리가 필요하다

0. 총여학생회론 - 지겨워도 피해갈 수 없는 것, 무서워도 눈감을 수 없는 것

델타페미니스트#4가 선거를 준비하는 여성주의 동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해주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 대답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안개처럼 퍼져있어 늘 곁에 있어서 포근하긴 하지만 막상 확실한 것을 건질 수는 없는 '노땅들'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집단 혹은 세대로서 - 따라서 결집되고 정리된 어떤 '내용'으로서 당신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늘 괴로워했고, 매년 제대로 결론짓지 못했던 총여학생회론이다. 우리는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대학 여성운동의 고민의 한 축을 이루어 왔던 어떤 주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결과물로서, 그리고 고민의 축적된 궤적으로서 이 제언을 받아들여주기를 원한다.

총여학생회론에 대한 고민은 매년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확실한 대답은 없었다. 우리는 학생회구조의 가부장성, 여성문제 자체를 비가시화하는 정치의 의미와 일련의 구조들, 그리고 자신의 태생과 존재근거를 위반하는 권력의 독점에 대해 맹렬히 비판해 왔다. 그러나 비판 이후에는 딱히 불잡을 손이 없었다. 새로운 전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자치를 말했지만, 그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 무엇이었고 우린 늘 불안했다. '지 길 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 그런데 우린 지금 어디로 가고있는거지?' 라는 느낌.

이제 우리는 총여학생회라는 단어에 얽혀있는 배신감과 비판들, 대안을 바랬던 상상력의 긍정성과 부정성, 그리고 모든 불확실함들을 좀더 명확히해보려고 한다. 물론, 당연싸따로, 이것은 '정답'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 중 누가 '정답'을 바란단 말인가? 고민의 정당한 축적물이면 충분하다. 지금/여기에서 자치를 고민하고 총여학생회를 고민하는 당신들의 열정과 진지함이면 충분하다.

1. 총여학생회에 대한 동상이몽(同床異夢)

우선 우리 머릿속에 멋대로 들어앉아 있는 총여학생회의 모습들을 전형화해보는 것이 정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 보자.

(1)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리자로서의 총여학생회

, 아무리 투표율이 50%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라 해도,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여학생조직으로서의 '총여학생회'. 바로 그 대표성과 역사 속에서 안착화된 총여학생회의 위상/공간/재정으로 인해 총여학생회는 다른 어떠한 여성 개인이나 자치단체보다 강력할 수 있다. 우리가 총여학생회를 하려는 이유는 바로 그 강력함 때문이다.

(2) 자치"질서"로서의 총여학생회

여성행동 선본의 핵심적 정책기조. 총여학생회의 존재이유는 '학생회'라는 점보다는 총'여'학생회라는 점에 있다. 즉, 그것은 여성주의적 공간이며 여성운동의 공간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여성주의/여성운동은 권위주의와 위계에 반대하며 소수자의 다양성과 차이들에 주목하는 정치이다. 여성문제는 일

반화되어 '2만 연세의 문제'로 봉합될 수 없으며, 여성해방은 '인간해방'으로 뭉뚱그려질 수 없다. 따라서 지긋지긋하고 가식적인 선거판에서 50% 투표율 중 50%의 지지율을 얻어 당선되었다 해도 그 집단이 '5천 여학우'를 대표할 수는 없다. 우리가 총여학생회를 하려는 이유는 '기구로서의 총여학생회'에 독점되어 있던 대표성/권위/공간/재정/의사결정권을 더 많은 다양한 여성집단들(자치단체들)에게 되돌려주고, 바로 그녀들이 총여학생회 본연의 존재이유에 걸맞게 더 많은 여성운동들을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3) 밋진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총여학생회

복지공약? 솔직히 귀찮아. 내가 왜 남의 일을 '대신' 해줘야해? 내가 총여학생회에서 하고 싶은 일들은, 내가 자치단체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과 결코 다르지 않아. 나는 내가 가진 정치가 옳다고 믿어. 아무리 상대적이라 해도, 여성창조자들(될 창조하는데? 뭐 어쨌든.)보다는 옳다구. 확실해! 그런데 왜 굳이 자치단체 말고 총여학생회를 하려고 하나구? 그게 훨씬 폼나잖아. 힘도 세고. 돈도 많고. 운동은 확장될수록 좋은 거 아닌가?

어떤가? 얼핏 대립적인 것처럼 그려진 이 세 가지 전형적인 상들 속에는 사실상 수많은 해명되지 않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답이 있다고, 그러니 객관식으로 답하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총여학생회가 뭐야?", "너는 왜 총여학생회를 하려고 해?"라고 주관식으로 주어졌을 때, 대답하기란 만만치 않다. 그래도, 일단 머리부터 아파오기 시작하는 건 비단 당신만의 증상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말고 문제를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자. 우리는 총여학생회론에 대한 혼돈의 핵심이 '학생회'와 '자치질서'의 대립쌍에 있다고 생각한다.

2. "나뿔 수밖에 없는 총여학생회" vs. "줄을 수밖에 없는 자치질서" ?

지금 현재, '자치질서', '자치단체' 라는 단어만큼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단어가 또 있을까? 동시에, '학생회'라는 단어만큼 갑갑하고 비판적인 냄새를 풍기는 단어가 우리에게 또 있을까? 혼란은 바로 이러한 '모호한 공감대'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바로 이 지점부터 질문은 시작되어야 한다. 학생회는 정말 몸쓸 것인가? 자치질서는 정말 학생회의 유일무이한 '대안'인가? 다시 말해서, '학생회'와 '자치질서'는 대립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생회의 어떤 점을 싫어했는지를 다시 곱씹어보아야 한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다. : 첫째, 학생회구조는 여성문제를 적절히 포착하고 정치화하지 못했다. 학생회를 '대중조직/조합조직'으로 바라본다 해도 그 '대중' 속에는 여성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학생회를 '정치조직'으로 바라본다 해도 그 '정치' 속에는 여성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슬로건은 학생회에 대해서도 유효했다. 둘째, 학생회는 권력과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 학생회장은 특별한 인간이며, 학생회 집행부는 '일반학우'보다 더 많은 정보접근방법을 알고 있고 더 많은 의사결정권, 그리고 더 많은 돈과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어째서 학생회가 권력체여야 하는가? 말이 되지 않는다. 셋째, 학생회는 완전한 대표체인 척한다. 대표라니! 저들이 하는 저 뻔한 나를 대표하지 않는다. 저들이 하는 저 사업은 내가 동의한 것이 아니다. 저들이 나를 대표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회는 '언제나', '모두의' 학생회라고 말해진다. 이건 기만이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회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냐는 점이다. 물론 여기서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는 허무한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생회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들, 애초의 의미들, 남아있는 가능성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선불리 학생회의 반정립으로서 '자치질서'를 사고해 왔다. 여기서 여성행동 선본의 정책기조를 잠시 떠올려 보자.

맞는 말이었다. 어쨌든 우리는 “학생회는 나를 대표하지 못했지만 ‘내가 하는 학생회’는 너를 대표할 수 있다”는 뻔뻔함과 거만함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자치질서로서의 총여학생회”라는 문제의식 그 자체는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의 오류를 범했다. 첫 번째는 ‘자치질서’를 사실상 ‘총여학생회’의 대립물로 구성함으로써 (예를 들어 “여성문제는 대표될 수 없다”, “선거에서 당신이 던지는 표는 위임이 아니라 동의의 표시이다” 라는 진술들을 생각해 보라), 총여학생회와 자치질서 모두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총여학생회는 없어져야 하는가? ‘학생회’이기 때문에? 대의정치(선거)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치질서는 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의 방식을 채택한다는 것인가? 나만이 나를 대표할 수 있다는 선언은 여성주의의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의 것이다. 그 속에서는 개인적인 것‘만’ 정치적이게 된다. 두 번째 오류는 자치질서를 자치단체테이블과 사실상 등치시켰다는 점이다. 자치단체들이 총여학생회를 운영할 때, 그것은 자치질서가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집단이 기주의’라 손가락질 했던 것이 전혀 사실무근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름 없는 자신, 여성모임을 만드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속에 고립되어 있는 자신을 위해서는 ‘자치질서로서의 총여학생회’보다 ‘모든 여성의 대표체로서의 총여학생회’인 편이 훨씬 낫겠다고 생각한 여성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여성창조자들(끔찍한걸 창조했군 그래)이 “5천여학우”라는 일반명사에 기대었다면, 여성행동선본은 “모든 여성이 맘만 먹으면 억압에 저항할 수 있다”는 일반화에 기대었던 것이 아닐까?

학생회 역시 자치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나온 결과물이었다. 군부독재에 대한 학생권리, 학교당국의 권위주의와 관료제에 대한 학생자치라는 절대다수의 공감대 위에서 학생회는 건설되었다. 비록 지금은 아닐지라도, ‘개인’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고립 속에서는 철폐할 수 없는 억압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자치단체를 만든 것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개인적 해결이 아닌 집단적 저항의 가능성이야말로 모든 운동의 핵심이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사실 문제는 ‘나뿔 수밖에 없는 학생회’에 ‘줄을 수밖에 없는 자치질서’를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자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여성’의 수준에서 말해질 수 있는 것들과 ‘어떤 집단의 여성’의 수준에서 말해질 수 있는 것들과 ‘여성 개인’의 수준에서 말해질 수 있는 것들 - 이 사이에 놓여 있는 피리를 메꾸는 일이다. 이제 허구적인 대립은 그만두자. 더 이상 우리의 자치질서를, 따라서 우리의 총여학생회를(!) 나뿔 것만 다 모아놓은 ‘학생회’라는 것의 안티테제로서만 구성하는 것은 그만두자.

3. 미완성의 올바름 - 총여학생회로 가는 자치질서, 자치질서로 가는 총여학생회

이제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 - 사실은 우리가 늘 고민해왔던 것들을 다시 재구성해보기로 하자. 과거의 질문방식에 대답하자면 이렇다. : “총여학생회는 여성주의적 공간, 여성운동을 위한 공간인가?” 그렇다! “총여학생회는 대표체인가?” 그것도 그렇다! 총여학생회는 ‘학생회’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반여성주의적으로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거나, 자치질서는 ‘자치’이기 때문에 ‘학생회’와 대립되어 그 자체 올바르다는 식의 이항대립은 허구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총여학생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총여학생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첫째, 총여학생회는 여성운동이 더욱 확장되고 심화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지자여야 한다. 여기에는 여성주의자들과 여성자치단체들이 이루는 질서가 보다 자율적이고 여성주의적이 되도록 만들어간다는 여성행동선본의 문제의식이 포함된다. (이것은 이전에 ‘여성운동체로서의 총여학생회’ 상이라고 말해졌던 측면이다.)

둘째, 총여학생회는 모든 여성들, 즉 집단으로서의 여성의 이해를 대변하고 적들(가부장제, 남성중심적 제도, 성차별 문화 등)로부터 여성의 권리를 되찾아오고 그것을 방어하는데 있어 강력한 행위자여야 한다. (이것은 이전에 ‘5천여학우의 대표체로서의 총여학생회’, 즉 ‘학생회로서의 총여학생회’ 상이라고 말해졌던 측면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명제에 즉각적으로 덧붙여져야 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다. :

첫째, 여성운동의 확장과 심화는 여성자치단체들만의 것일 수 없다. 즉, ‘자치질서로서의 총여학생회’는 ‘자치단체들의 테이블’로 등치될 수 없다. 사실 관건은 더 많은 여성들을 여성주의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들에게 더 많이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자치질서로서의 총여학생회'가 올바른 이유는 '집행부에 의해 독점되었던 총여학생회'가 '자치단체에 의해 독점되는 총여학생회'로 바뀌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것이 더 많은 '개인'으로 고립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손을 내밀수 있게 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게 할 것인지 는 여러분들의 몫이다.

둘째, '모든 여성'이라는 일반명사는 언제나 미완성이다. 늘 자각해왔듯이 여성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으니까 말이다. 5천여학우는 없다. 그렇다면 누가 있는가? 어떤 서로 다른 조건이 있으며, 어떤 서로 다른 여성 집단들이 5천여학우 안에 존재하는가? 5천여학우의 허구를 깨는 것은 "5천여학우는 없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여성 일반의 문제가 가능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서로 다른 여성들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여러분들의 몫이다.

셋째,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슬로건의 의미는 축소될 수 없다. 앞서 지적했듯이, 아무도 나를 대표할 수 없다는 선언이 오직 나만이 나를 대표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 그것은 여성주의가 아니라 허접한 개인주의에 불과하다. 우리는 성폭력을 '직접 당했기 때문에' 성폭력에 반대하는가? 우리는 늘 생리대를 안 갖고 다니기 때문에 생리대 자판기 설치를 요구하는가? 아니다. "여성으로서의 경험"이 "나만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정치가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설득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집단으로서의 여성의 범위를 확장하자.

넷째, 대표성 역시 영원히 미완성이다. 25%의 지지가 75%를 무마해주지는 않는다. 이 역시 누구나 알고 있던 바이다. 문제는 이 75%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 그것 때문에 우리는 '총여학생회'로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가? 아니면 그것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대표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물론 둘 다 아니다. 총여학생회는 구체적인 개인 몇사람 (많은 적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대표한다. 총여학생회의 대표성은 몇 사람이 지지했는가 라는 "숫자"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자치질서로 가는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로 가는 자치질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독점이 아닐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는 것, 자치의 움직임들을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것으로 만들고 한발자국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지지/보조해주는 것 -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선본,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총여학생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여학생들의
정치성

여학생들이
자치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것